

집 '중'기 '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을 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바란다 _ 문화일반

기초예술은 천연기념물이 아니다

culture 'art

지금 새로 출범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거는 기대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이나 문화예술계의 화합 같은 지극히 당연한 지적에서 좀 더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문화예술계의 내부적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소통을 통해 공유하게 될 기본적인 메시지는 '기초예술은 보호하고 관리되는 천연기념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예술이 사회, 산업, 경제 등과 같이 사는 길을 찾기를 기대한다.



이승엽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기초예술지원이 주요 임무

지리산에서 덧에 걸려 죽은 곰 얘기가 화제다. '랑림 32호' (뭔가 특수한 임무를 띤 것 같은 이미지를 풍긴다)라고 불리는 이 암컷 곰은 방사된 지리산에서 슬금슬금 내려왔다가 농민이 놓은 울무에 걸려 숨졌다. 울무를 놓은 밤나무 농사꾼은 처벌이 두려워 죽은 곰을 땅에 묻고 말았다. 죽은 곰과 함께 문헌 발신기와 인식표 때문에 농부는 '암매장' 한지 일주일만에 당국에 적발되었다. 그는 농사를 망치는 야생동물을 퇴치하려고 놓은 덧에 곰이 걸리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랑림 32호는 천연기념물 제329호이자 1급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으로 올 봄에 북한에서 들어온 곰 중에 한 마리다. 산에 곰을 되살리려는 작업이 주목을 끌며 거창하게 진행되는 것은 웬만큼 사회적 동의를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단군신화의 주인공이어서가 아니라 자연생태계를 되살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이런 노력이 밤농사꾼에게는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니다. 부쩍 개체수가 늘어난 야생 동물들 때문에 농사를 망친 농부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농사꾼은 야생동물들과 수확물을 두고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다. 밤농사꾼은 다른 밤농사꾼들과 경쟁하듯이 멧돼지와 같은 산짐승과도 겨뤄야 하는 것이다. 좀 과장하자면 농부가 사는 방식과 자연생태계는 어차피 사이 좋게 공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랑림 32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시민들이 착잡한 것은 그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개탄하는 생태계의 혼란은 대부분 인간이 초래한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이 사는 방식을 바꾸거나 양보하지 않으면 훼손을 막을 수 없다. 그 점에 농부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농사를 지었을 뿐이다. 그런데 국가적 프로젝트로 진행되던 반달가슴곰 랑림 32호는 죽었다. 곰과 농부 중에서 어느 한편을 들기 어렵게 되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 달에 공식 출범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주요한 임무는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이다. 문화예술이라는 분야가 정책의 대상이 되고 공공지원의 대상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얘기가 아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출범이

1973년이니 그나마 길게 잡아도 30년이고 본격적인 문화예술의 정책은 그보다 훨씬 짧다고 봐야 할 것이다(막상 '기초예술'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도 불과 1,2년 전 일이다). 1990년대이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정부에 '문화관광부'라는 독립된 부처가 생기고 도시마다 큰 규모의 문화공간들이 속속 지어졌다. IMF를 지나면서 지원금 규모는 더 늘었지만 역시 압권은 작년부터는 유입되기 시작한 복권기금이었다. 복권은 조세저항이 거의 없는 명백한 사행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울의 반대쪽에 공공성 있는 사업을 매다는 경향이 있다. 예술부문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화예술의 공공재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가 느닷없이 강조되기 시작했다(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문화산업이니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니 하는 말들은 주로 사적인 가치체계에 머물렀던 문화예술의 가치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었다. 문화예술은 메가트렌드의 단골손님이 되었다. 물량으로 보아도 문화예술, 특히 기초예술에 지원은 이전에 비해 엄청나게 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거는 기대와 우려

바로 그 시점에 기초예술의 위기를 말한다. '종다양성'이니 '건강한 문화 예술생태계'니 하는 말들이 부쩍 설득력을 가진다. 객관적인 공공지원규모와 시장규모는 커지는데 위기감은 줄어들지 않는다. 지금으로서는 획기적인 재정지원(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지만)으로도 위기는 타개될 것 같지 않다.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공간에도 불구하고 기초예술은 더욱 구석에 몰려 왔기 때문이다. 기초예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혹시 기초예술이 우리 사회의 삶이나 태도와 점점 분리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것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더욱 공감하게 되었지만 그만큼 낡은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남한에서 이미 멸종되어 버린 반달가슴곰처럼 의지가 불같은 동물학자와 생태학자, 그리고 그 명분을 십분 살리는 정부의 관심 속에 큰 보호구역에 고립되어 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추측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면 지금 새로 출범하는 예술위원회에 거는 기대와 우려는 좀 달라져야 할 것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이나 문화예술계의 화합 같은, 언론의 주문은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지만 좀 더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소통해야 한다. 소통의 1차적인 상대는 물론 문화예술계 내부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의 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위기를 타개할 원동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계라고 단순하지만은 않다. 문화정책의 파트너인 여러 단위의 공적 기구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예술가들과 단체, 그리고 일반시장과는 다르다고는 하지만 시장의 법칙에 준하여 작동하는 다양한 예술시장이 존재한다(기초예술의 고립은 이 시장에서 서부터 시작된다). 소통의 다음 상대는 문화예술계를 넘어선다. 정작 예술이 소외되는 것은 산업과 경제 또는 사회 시스템으로부터이기 때문이다. 이런 소통을 통해 공유하게 될 기본적인 메시지는 '기초예술은 보호하고 관리되는 천연기념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예술이 사회, 산업, 경제 등과 같이 사는 길을 찾기를 기대한다. 그 노력의 중심에 위원회가 있기를 기대한다.

